

산림TF 제13차 회의 결과

1. 개 요

- □ **일시 / 회의장소**: '21. 2. 25(목). 15:00~17:00 / 농특위 대회의실
- □ 참석 인원: 13명
 - (산림TF) 정은조 단장, 김종원, 민경택, 안기완, 이성권, 이임영, 이학래, 최무열 위원 (8명)
 - ㅇ (관련기관) 산림청 하경수 과장, 이동진 사무관(2명)
 - ㅇ (사무국)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, 윤종혁 사무관, 오황기 전문관(3명)

□ 주요 내용

- ㅇ 농특위 의결안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(산림청)
 - *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(제2019-7호)
 - **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방안(제2020-7호)
- ㅇ 2021년 의제 '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방안' 논의
- '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' 초안 발표(산림청)
- '21년 의제관련 세부과제 의견 수렴 등

2. 회의 결과

- □ (안건 1. 추진실적)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
 - o 1과제: NDC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
 -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유도 필요
 - ㅇ 3과제 :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
 - 최근 전국적인 주택건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목재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(국토부), 민간에 목재 이용 건의 필요
 - 국공립시설, 학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목재를 사용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

- □ (안건 2. 의결안건 추진계획) 전반적으로 추진계획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,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은 일부 보완 필요
 - 1과제 : 산주·임업인 지원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
 - 임도 개설 시 효과적인 임도노선이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포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필요
 - ㅇ 2과제 :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국유림 경영
 - 벌채제도 완화를 위해 벌기령을 전체적으로 낮추게 된다면 목재 로서 가치가 있는 제재목 등의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
 - 국유림 영림단의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을 위해서는 영림단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확산의 근거로 활용
 - ㅇ 3과제: 산림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
 -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현재와 차별 성이 부족하므로 검토 필요
 -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정부지원이 자연휴양림에 한정되지 않도록 근거 마련 필요('산림휴양법' 개정 등)

□ (안건 3. 2021년 의제)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방안

- 추진과제 내용 중 임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,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, 산림환경세 단계적 도입 방안 등 3가지 과제에 집중
- 산림환경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
 할 수 있도록 고민 필요
 - 국산목재 가격 경쟁력 보완, 탄소세, REC 구입 등에 활용 제안
- 국산재 활성화는 목재이용 문화 확산과 연계되어 법제화로 추진 될 필요가 있으며, REC에 대해서는 가정용, 주택용, 농가용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혜택 제공 필요
- 탄소중립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다루고 사무국에서 정리한 내용위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함